

가계부채가 복병



미국 듀크대 졸업
난징대 중국어 수학
파리바스캐피탈마켓스
99년 부친 찰스 게이브와 게이브칼연구소 설립

명순영 기자

99년 설립된 게이브칼리서치(Gave Kal Research)는 헤지펀드 사이에서는 유명한 연구기관이다. 세계 100대 헤지펀드 가운데 60곳이 게이브칼의 투자자문을 받는다. 32개국에서 400여개 기업과 금융기관이 게이브칼 보고서를 참고한다. 5년 전부터는 직접 헤지펀드를 설립해 투자에도 나섰다. 게이브칼의 루이 빈슨(Louis-Vincent)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향후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해 본사를 영국 런던에서 홍콩으로 이전시켰다.

듀크대를 마친 뒤엔 난징대에 들어가 일부러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다. 유명 분석가이자 펀드매니저로서 세계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불어 한국 경제와 증시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리먼브러더스 붕괴에서 보듯, 미국의 그림자금융시스템(쉐도뱅크시스템, 잠깐용어 참조)은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Leverage : 돈을

빌려 이익을 내려는 방식)를 창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대출이 발생하지 않고 돈이 돌지 않으니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처럼 경제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 회복에 관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거 불황기와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니

다. 보통 높은 성장세가 꺾이면서 불황이 오는데 이번에는 낮은 성장 국면에서 불황이 왔습니다. 또 과거에는 기업의 과잉투자 때문에 인플레이션 뒤에 불황이 왔는데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영역인 주택에서 왔다는 게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저성장 국면이라 더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경제 사이클상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때라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옥석 가릴 중요한 시기

루이 빈슨 CEO는 “헤지펀드 매니저로서는 이번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석을 가릴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다.

“유동성이 심하게 압박받으면서 자산가격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실물경제가 나빠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는 반면, 신용이 괜찮은 데도 채권자의 유동성 압박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지요. 이를 잘 구분하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좋은 투자처지요.”

그는 “한국 경제는 불안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 증거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300억달러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협정이다. “한국의 위상을 단번에 높여준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건(Major major event)입니다. 첫째는 단기 유동성위기에 빠져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요청할 필요가 없기에 의미가 큼니다. IMF 처방은 금리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거두는 등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통화스와프 체결로 달러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둘째는 미국과의 스와프 체결 국가가 모두 미국과 한편으로 여겨지는 국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 많은 큰 형(Rich big brother)이 생긴 셈입니다.”

그는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 주식과 채권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 유동성위기가 끝나면 반등할 것”이라며 “장기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가계와 기업 부채 부분을 우려했다. 루이 빈슨 CEO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ECO

한국 투자의 기회요인

- ✓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유동성 불안 해결
- ✓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지나친 저평가

한국 투자의 불안요인

- ✓ 가계·기업의 지나친 부채비율
- ✓ 원화 가치 하락

잠깐 용어

·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 머니마켓펀드, 주식 달러, 헤지 펀드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수의 고위험 채권을 사모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그늘에 가려 있다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쓴다.